**일병목회강좌 사무엘서 3강**

정리 : 최희영 목사

**1. 다윗의 인생 2막, (feat. 밧세바)**

- 다윗의 삶을 골리앗을 물리친 순간을 정점으로 한 전반부의 생활에 초점을 맞춰서, 최고의 영광을 누린 영웅적 인물로 그려왔다. 밧세바 사건과 그 이후의 다윗에 대해 무관심하다.

- 다윗은 은혜를 대표하는 자이다. 밧세바 사건에서 비롯된 다윗이 인용된다.

- 골리앗 앞에서 외친 신앙고백이나 법궤 앞에서의 기쁨이나 성전을 짓겠다는 진심은 무엇인가?

**2. 동심원, 다윗과 바울**

**1) 불연속의 도래 (행9:1-16)**

-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은 회심한 것이 아니라, 한 방 크게 얻어 맞은 것이다.

• 바울의 인생이 지진이 나 갈라지듯이, 이전의 삶이 이후의 인생에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연속성도 가질 수 없는 생애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.

- “택한 그릇”이라는 표현만 놓고 보면, 바울이 아닌 스데반이 사용되었어야 더 타당해 보인다.

• 성경전체가 창조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거칠게 담아 놓고 있는데, 창조와 부활을 이유가 되게 묶어서 그 진정한 의미 | 무에서 유를 만든 것과 음의 극한을 양의 극한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이야기 | 를 안 믿는 것이다.

• 택한 그릇 |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| 인데, 오히려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역설과 모순을 봐야 한다.

- 이런 단절과 앞뒤가 맞지 않는 역설이 만들어내는 은혜의 범위를 못 담아 내고, 진심과 막막한 믿음으로 대체하려 한다.

**2) 극에서 극으로**

**① 택정과 기름부음**

-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까지 반대자로 길렀다.(갈1:11-17)

• 바울은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한 하나님 되심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.

• 이 반전이 다윗의 생애에도 똑같이 있다.

**② 새 관점 (New Perspective OF Paul)**

- 바울은 예수를 만나자, 그가 자랑했던 모든 과거를 배설물로 여긴다. (빌3:1-9)

•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잘한 것이 다윗의 전반부인데, 그것이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.

- 바울은 그가 죄인중의 괴수, 0이 아니라 마이너스였다고 술회한다. (딤전1:12-16)

•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말은 선택의 여지나 조건에도 없었고 그 이하였다는 뜻이다.

-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것은, 이 일이 능력이나 조건이나 이유나 준비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.

**③ 이스라엘과 역사를 품다 (롬10:1-4)**

- 구원을 | 하나님이 ‘빛이 있으라’고 선포한 것 같이 | ‘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라’고 선포한 하나님의 손이며 품이며 운명이 되는 선포였다고 이해해야 한다.

-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독교를 전 인류에게 적용하기 위한 전반부를 살게 한 | 예수 안에 담은 것이 무엇인지를 준비시킨 | 시간이며, 우리에게 준 기본무대이다.

-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어리석은 짓을 다 끌어안고 그의 구원과 은혜라는 테두리의 밖에 있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이고, 성경이 증언하고 싶어하는 것이다.

**3) 불연속의 이중주 (고후4:7-12)**

-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의 중간에 놓는 것이 아니라, 둘을 갈라 놓고 은혜를 퍼붓고, 그 은혜가 퍼부어지는 일이 현실에서는 보상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의 길 같은 현실이라는 사실과 이 둘이 섞여서 이중주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눈을 떠야 한다.

- 내가 죽음으로서 상대방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. 내가 죽고 실패하고 오해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생명과 구원을 전달하신다.

- 세상이 일하는 것 | 우리를 죽이고 반대하고 모욕하고 괴롭히는 것을 계속 하는 것 | 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.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된다.

• 지금은 아직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. 그가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것으로 하신 구원을 아직 연장하고 계신다.

• 그분이 아직 시간을 뒤로 미루고 계신다. 너 그 일에 참여하라. 세상이 악한 일에 자기 역할 하듯이, 넌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의 역할을 하라. 이중주이다.

- 세상은 결국 사망으로 가고, 결국 위협과 거짓에 불과한 짓을 계속 하고 있다.

• 역사는 발전하지 않고 인류가 답을 찾아낸 것이 없는 짓을 하는 그 기본 | Base | 에서 하나님이 멜로디를, 화음을 만들고 계신다.

•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| 하나님이 이 조건 속에서 이렇게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준 구원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하여 | 내가 담아내는 것이다.

•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이다.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.

• 전도 없이, 전하는 자 없이 구원이 그냥 나오게 하지 않고 |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| 예수께서 자신이 이룬 구원을 인류와 역사 속에 맡기셨다.

**4) 근거 있는 자신감 (고전2:1-5)**

-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해하고 있다.

• 예수께서 구원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| 인간들과 대등한 지위와 대등한 조건 속에서 | 구원을 이루셨고, 끝까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구원을 베풀 것이란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.

-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만만하다.

• 신이 와서 구원을 이루는데도 죽는 방법을 썼다, 죽어도 된다는 것 하나만 알고 왔다고 말하는 것이다.

•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, 우리에게 제한 된 것은 없다. 장애가 될 것도 없고 절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.

- 하나님은 일하신다. 2천년 전에 한 번 일하시고 지금 방관자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. 우리를 불러 세우셨고,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. 그것이 다윗 생애의 반전에 대한 이해이다.

**3. 다윗의 시 (시편 51)**

**1) 배경, 두 약속**

-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성전건축 약속과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영원한 왕권 약속 후에 일어난다.

• 이 영원한 왕권의 약속은 아이러니하게 다윗의 헌신과 진심과 대조된다.

- 성전건축 약속에 대해 하나님은, ‘내가 복을 내리고 생명과 진리와 찬송을 만들어내는 주인이지 너희가 어찌 내게 무엇을,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단 말이냐’고 꾸짖고, 오히려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한다.

• 다윗이 한 기특한 일에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다.

• 하나님이 모든 운명과 복을 주는 자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다윗 왕권의 영원성으로 보이는 것이다.

•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고 그 약속한 복을 절대 변개치 않는다는 사실이 다윗 왕권의 영원성의 핵심이며,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써 영원성이 완성된다.

- 그래 놓고 밧세바다.

• 나단이 찾아오기 전까지 그는 | 바울처럼 | 죄를 지은 줄 모르고 있었다. 알지도 못했다. 죄가 모국어이고 본성이다.

**2) 존재론적 회개 (1-9절)**

- 다만 밧세바 사건을 회개하고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, 자기 존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.

• 이것은 저지른 일이고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고 존재론적 회개를 하는 것이다. 나라는 존재를 바꿔달라는 것이다.

- 하나님께서 씻어야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야만 새롭게 되는 존재라는 뜻이다.

• 하나님만이 죄를 씻으실 수 있고 죄를 안 짓게 할 유일한 분이다. 나는 선택의 여지 없이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자이니, 나를 새롭게 출생시켜 주시라.

**3) 주의 도 (10-13절)**

- “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다”는 말은 | 아무도 용서 못하고 너도 용서 못해도 |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이다.

- 주께서 오셔서 우리 죄인들, 하나님을 반대한 이들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대접하는 것이다. 창조물들이 사망에 굴복한 것을 보고 분해하시고,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여신다.

• 우리는, 거듭나야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결과가 구원이 되는 것같이 얘기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실패도 없고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이 자기가 커야 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. 구원파 같다.

- 구원이 목적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나님이 씨름하시면서 만들어 가신다. 전문적 용어로 성화라 하고 현실적 표현으로는 환난이라 한다. 환난은 고급한 단계에 있는 것이다.

**4) 상한 심령 (14-19절)**

-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‘순종이 제사보다 낫다’는 제사에 대한 소극적 개념이, 밧세바 사건을 겪은 다윗에 의해 ‘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’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진전된다.

• 하나님 앞에 보상을 확보할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.

• 골리앗을 죽이고, 법궤 앞에서 춤추고,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,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위대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다.

•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| 밧세바 사건이라는 환난을 겪은 다윗의 | 상한 심령이다.

-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에, 이 방법 | 환난 | 을 쓰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다. (롬5:1-3)

**4. 동심원, 다윗과 베드로**

**1) 충성과 진심 (마16:13-24)**

- 베드로는 진심을 다해 충성을 맹세하지만 오히려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욕 | 사탄아 | 을 먹는다.

•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, 사람의 방법, 사람의 상상으로 때우려 하는 것이라는 꾸지람이다.

**2) 상한 심령, 그리고 사명 (요21:15-22)**

- 세 차례의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 이끌어낸, ‘진심으로 사랑은 하는데, 실력은 없다’는 고백 위에 사명을 부여한다.

•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아 자신할 수 없는 조건 | 사랑하지만 실력은 없고, 실력은 없지만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느냐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조건 | 속에서 부여한 사명인데, 그의 죽음에 관한 것이다.

- 너나 잘하세요, 설명을 해서 누군가와 짐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아니다. 납득을 시켜서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아니다. 주님이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다. 변명도 원망도 비난도 필요 없다.

- 수준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명예와 기회와 책임과 영광을 아는 것이다.

• 우리 인생은 영광스러운 것이다.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,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생애에 담는 영광이다.

•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 조건 속에 담아낸 어둠 속에 비추이는 한 줄기 빛이다. 사망으로 얼룩진 무덤에 시체를 일으켜 거룩한 옷을 입히는 찬란한 능력이다.

**5. 다윗, 은혜를 위하여 (롬4:1-8, 13)**

-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존재론적으로 죄인인 것을 알았다.

• 그 죄는 밧세바 사건으로 대표되어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, 다윗의 앞 생애가 가졌던 영웅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아니라는 반전을 시킨다.

- 은혜를 위해서 다윗이 불려 나온다.

• 은혜 혹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구원이라는 약속이 영원토록 실패하지 않도록 하려고 율법으로 하지 않고 은혜로 했다.

• 위대해야만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, 아무 것도 아니고 심지어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운명과 이 결론이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에게서 보여주려는 것이다.

**[질의응답]**

- 예수의 죽기까지 순종, 그러므로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뜻

▶ 죽음이 절망과 비참의 끝인데, 거기까지 다 담았다는 뜻이다. 성육신이란, 예수가 우리와 동등한 자리에 오심으로써 인류를 죽이려면 예수도 죽여야 하고 예수를 구원하려면 다 같이 구원할 수 밖에 없다는 데까지 이른다.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되심을 증언하셨다는 뜻이다. 시간 공간 문맥 정황 단계 과정 후회와 실패 이 모든 것이 인간을 만드는 인생이다. 기독교는 예수가 성육신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단숨에 하나의 깨우침으로 명분으로 결론을 갖고 싶어하지만, 십자가는 가장 구체적인 실존이다.

- 잘 가고 있는지

▶ 말은 맞는데 경우에 안 맞는 말들이, 그 말들을 안주하는 자리에서 더 높은 데까지 밀어 올린다. 담보다 커지면 보이고 알게 된다.

- 신앙적 시각차이 때문에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흐를 때

▶ 답답한 곳에 보냄을 받는다. 하나 더 아는 자의 넉넉함을 가져야 한다. 넉넉함이란 그 짐을 지는 것이다. 율법주의는 가장 쉬운 안심법이다. 뭘 하지 말아야 하는, 이건 끝없이 더 해야 하는 것이다.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일하심으로, 무한을 그 제한된 33년의 시간과 갈릴리라는 공간에 다 담았다.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이신 기적이다. 우리가 뭘 했는지 지금은 모르고, 우리는 큰 그림의 한 퍼즐일 수 있지만, 우리가 없으면 그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다. 우리는 그 그림을 못 볼 수 있다. 충성이란 그런 것이다.